

※ 출제의 경향

○ 출제 비중

- ① 역사교육론 : 22점(6문항, 2점 1문항 + 4점 5문항)
- ② 한국사 : 22점(7문항, 2점 3문항 + 4점 4문항)
- ③ 서양사 : 18점(5문항, 2점 1문항 + 4점 4문항)
- ④ 동양사 : 18점(5문항, 2점 1문항 + 4점 4문항)

○ 전반적인 경향

- ① 4점 서술형 문항마다 1점 정도는 까다롭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음. 이는 강화된 임용 감독 규정 등과 결부되어 시간 부족을 유발하였으며, 작은 실수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음.
- ② ‘~을 바탕으로’, ‘~을 참고하여’, ‘~을 포함하여’, ‘~과 관련하여’, ‘~과 비교하여’, ‘~의 특징에 근거하여’ 등의 문항 출제가 많았음. 올해 총괄 평가/모의고사와 채점(성적표) 등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이러한 문항은 채점 기준에 따라서 정답의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음. 다만, 문항의 구체적 조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 오답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③ 사료의 출전 등이 제시되지 않는 문항들이 많았음. 특히 한문 사료 등은 예년과 달리 문항의 주제와 관련한 힌트(실마리) 제공이 더욱 제한되어 수험생들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만한 여지가 많았음.
- ④ 이른바 ‘신간 서적’ 혹은 ‘심화 서적’이라고 불리는 서적들(혹은 ‘기본 개론서’라고 지칭되는 서적이외의 책들)에서 출제되는 사례가 예년보다 많아졌음. 해당 서적들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췌독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점수의 차이가 날 여지가 많아졌음.
- ⑤ 출제자와 채점진의 채점 기준에 따라 정답률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문항이 몇 개 있음. 이것의 채점 기준에 따라 커트라인의 등폭이 달라질 수 있음.
- ⑥ 올해는 예년보다 공립 티오도 늘어났고, 사립위탁 1차 등으로 분산된 인원들도 많음. 채점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교육학도 채점 기준에 따라 점수 분포도가 달라질 여지가 많은 문항 유형임.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전공+교육학 성적 꼴찌로 붙는 사람들의 점수는 예단할 수 없으며, 지역별로 경쟁률의 차이 등으로 인해 1차 커트라인 격차도 커질 여지도 많음. 그렇기 때문에 12월에는 2차 준비에 매진할 것을 권함.

○ 과목별 경향

(1) 한국사

- ① 2~3문항은 분명 전년과 비슷하게 쉬웠음. 다만, 이러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제법 변별력 있어 보이는 조건들이 많았음. 문항의 조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이러한 스타일 적응 여부가 점수를 가를 여지가 있음. 실제로 몇몇 부분의 경우 정답률이 10%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음.
- ② 특정 개론서에서만 나왔다고 할만한 문항은 없었음. 다만 물어보는 유형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 시대사총서 시리즈(푸른역사)나 『시민의 한국사』 1·2권이 그나마 무게감있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사료됨.
- ③ 근현대사 문항이 수험생들의 점수를 가를 여지가 많아짐. 공부해왔던 대로 교과서 내용에 충실해왔다고 한다면, 혹은 『시민의 한국사』 등으로 보완해왔다고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문항들이었으나, 실수의 여지도 제법 있었음. 단체 이름을 쓰는 과정에서 1~2개 정도 실수가 있었다는 수험생들이 제법 있었음.

(2) 동양사

- ① 주제는 익숙하나 생소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음. 문항에 조건에 기반한 사고를 요하는 문항들의 출제가 제법 있었으며, 답안을 쓰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음. 몇 가지 부분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음.
- ② 제도사 등의 통시대사적인 문항들의 출제가 지속되었음. 이러한 특성은 2012학년 이전의 문항에서 나오던 유형이었는데, 이러한 유형들의 문항을 잘 대비했느냐가 점수를 갈랐을 것으로 보임. 다행히 본원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계속 반복하였고, 시험 직전에도 다시 한 번 정리하였던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 ③ 근래 비중이 줄어들었던 『자료로 보는 아시아사』(위더스북), 『중국의 역사』 시리즈(해안)에서 출제된 내용들이 제법 있었음. 이는 예년에 비해 중국 전근대사의 오답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A-02

- 정답 : ㉠ 의자왕, ㉡ 진덕여왕
- 합격권 정답률 예상치(기대점수) : 90%(1.8점)
- 수험생 오답 사례 : ‘비담의 난’으로 인해 선덕여왕으로 착각한 경우가 다소 있었음.

○ 출제 근거

① 2015 역사2(미래엔) 57쪽

고구려가 수·당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 백제와 신라의 대립도 격화되었다. 백제 의자왕은 당과 연결된 신라를 협공하기 위해 고구려와 손을 잡고, 신라의 당향성을 공격하여 신라와 당의 연결을 차단하려고 하였다. 백제는 신라의 40여 성을 함락하고, 낙동강 서쪽의 대야성(경남 합천)까지 진출하여 신라의 수도를 위협하였다. 위기를 느낀 신라의 김춘추는 고구려에 가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고구려가 신라에 빼앗긴 죽령 이북의 땅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② 시민의 한국사 1권 150쪽

백제와 고구려의 협공이 더욱 거세지면서 신라인 사이에 위기감은 고조되고, 진골 귀족 사이의 갈등도 더욱 거세졌다. 결국 구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상대등비담(毗曇)이 “여왕이 정치를 잘못한다.”고 주장하며, 647년 반란을 일으켰다. 처음에 반란군은 기세가 높았으나, 김춘추와 김유신을 주축으로 하는 선덕여왕 측근 세력에게 10여 일만에 진압됐다. 반란 중에 선덕여왕이 죽자, 김춘추 일파는 진덕여왕을 추대했다. 김춘추 일파로 대표되는 신귀족 집권시대가 열린 것이다.

A-03

- 정답 : ㉠ 보부상, ㉡ 황국협회
- 합격권 정답률 예상치(기대점수) : 90%(1.8점)

○ 출제 근거

① 2015 한국사(리베르) 138쪽

정부는 보부상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해상공국을 설립하였다.

② 2015 한국사(리베르) 116쪽

독립 협회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보수 관료들은 ‘독립 협회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시행하려 한다.’라는 익명서를 곳곳에 붙였다(익명서 사건). 놀란 고종이 이상재 등 독립 협회의 주요 간부를 체포하고 독립 협회의 해산을 명령하였다.

이에 독립 협회와 백성들은 만민 공동회를 열어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보부상 중심의 황국 협회 회원들을 동원하여 독립 협회를 습격하게 하였다. 독립 협회와 황국 협회의 충돌을 빌미로 고종은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 공동회를 강제로 해산하였다(1898. 12.). 얼마 후 독립 협회도 해산되었다

③ 시민의 한국사 2권 99쪽

보부상은 1883년 해상공국을 설치해 영업 독점권을 확보하고, 외국 상인의 불법적인 내륙 행상을 막았다. 상리국은 갑오개혁기에 해체됐지만, 정부는 1898년 독립협회를 탄압하기 위해 보부상을 중심으로 황국협회(皇國協會)를 만들었다. 정부는 독립 협회와 황국협회를 모두 해산시킨 후 1899년 다시 보부상을 중심으로 상무사(商務社)를 설립했다. 상무사는 전국의 상업 관련 업무를 통할 논의하는 조직을 표방했으나, 상민에게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행상 독점권과 조직력을 기반으로 외국 상인의 불법적인 내륙 행상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

A-06

- **정답** : ㉠은 과진론, ㉡은 황로술이다. ㉢은 진의 과중한 강제 노동(요역, 강제 동원령)과 연좌제 등에 반발하여 이른바 진승·오광의 난을 일으켰는데, 이는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으로 이후 유방과 항우 등에 의한 반진 봉기를 유도하였다. ㉣은 오행설에 바탕을 둔 천인상관설(천인감응설)인데, 이는 하늘과 인간은 서로 교감을 하기 때문에 황제가 정치를 잘하면 상서로운 징조를 내려 주고 잘못하면 재앙을 내려준다는 것이다.
- **인정 답안** : ㉠의 과진론은 가의(賈誼)의 『신서(新書)』라는 책 안에 실려 있는 글임. 채점자의 정답 범위 설정에 따라 인정 답안으로 가능할 여지는 있음. 『동양사개론』 215쪽에는 “유학을 실제 정치에 이용하려는 경세학으로서 가의(賈誼)의 『新書』 등이 유명하다.”라고 서술하였음. 중국의 역사 : 진한 시대』 242쪽에는 “(진제국의 실정에 대한 부각은) 가의(賈誼)의 저서 『신서(新書)』 중의 ‘과진론(過秦論)’에 이미 나타나 있고~”라고 서술하였음.

○ **합격권 정답률 예상치(기대점수)** : 50%(2점)

○ **문항 사료 검토(가의, 과진론)**

시황제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남아있는 위세는 여전히 멀리 떨어진 변경지역까지 두려움에 떨게 했다. 그러나 진승[陳涉]은 매우 가난한 집안의 자제로서 부랑자나 노예와 비슷한 사람이었으며 강제로 변경을 지킬 군사로 징발당해 끌려가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재능은 보통 사람에도 미치지 못했고 공자[孔丘]나 묵자[墨翟]와 같은 현명함도 없었을 뿐 아니라 범려[范蠡]나 의돈(猗頓)과 같은 부유함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변경을 지켜야 하는 필부로서 반란을 일으켜, 과중한 부역에 찌든 농민들을 이끌고 불과 몇 백 명의 대오를 지휘하여 방향을 돌려 진 나라를 공격했다. 그가 나무를 베어 무기를 삼고 대나무를 높이 들어 깃발로 삼으니 천하의 호걸들이 구름 같이 몰려들어 호응했으며 허다한 사람들이 식량을 지고 와서 마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이에 효산(峯山) 이동의 영웅호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진 왕실을 멸망시켰다.

* 필부(匹夫) : 신분이 낮고 보잘 것 없는 사내

○ **수험생 유사 답안 검토 사례**

- ① ㉢의 경우 ‘일개 필부’가 진승임. ‘진승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서술할 것’인데, ‘진승 오광의 난이다.’라고만 썼을 경우 정답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갈릴 여지가 있음. 수험생들의 경우 진승 오광의 난이라고만 쓴 경우와 가혹한 부역과 연좌제 등과 결부시켜 쓴 경우로 나뉨.
- ② “춘추공양전에 기초한 유교적 지배 이념”의 구체적 내용을 서술할 것”에 대한 수강생 답안 검토 사례(※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때 여러 차례 다루었기 때문에 익숙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구체적인 양상은 갈림. 조건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써야 하는 것인지 고민되었던 것으로 판단)

< 검토 사례 >

- 천인감응설은 군주의 통치에 하늘이 반응한다는 이념으로서, 황제중심 중앙집권화 정책을 뒷받침했다.
- 동중서의 천인상응설은 황제가 하는 일에 따라 하늘이 감응받을 수도 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천인감응설에 기초한 황제권의 절대화
- 법가적 통치이념과 유교주의 사상의 결합
- 태학 설립, 효령과 실시 등 유교 정책에 영향을 끼쳤다.
- 충효를 기반으로 한 황제 지배체제의 정당화이다.

○ **출제 근거**

①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68쪽

도가는 위선적인 도덕정치와 적나라한 폭력통치를 부정했지만, 도의 체현자인 군주에 의한 고도의 우민정치로 발전할 수 있었고, 이점에서 훗날 법가와 결합해 황로술로 나아갈 수 있는 논리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② 『중국의 역사 : 진한시대』 258쪽

이 시대 최고의 유학자로 간주되는 동중서는 춘추공양학을 닮아 그 속에서 재이응보(災異應報)의 논리를 발견했다. 그것이 소위 그의 재이설이다. 『춘추』는 말할 것도 없이 5경의 하나로 공자가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노국(魯國)의 사서고, 공양이란 그 해설서인 전(傳)의 이름이다. 그가 『공양전(公羊傳)』 속에서 발견한 재이설이란 지상에 사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전에 하늘이 무엇인가 재이를 보여 미리 징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이 가진 신비성을 중시한 것으로 당시 유가사상에 보이는 신비주의를 대표하는 것이다.

A-07

- **정답** : ㉠은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이고, 이 단체는 한국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 민족주의 세력과의 연합을 도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은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미얀마·인도 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하여 일본군 포로 심문, 문서 번역, 선전 활동 등을 담당하였다. 중국 군사위원회가 (다)를 제정한 이유는 김구 주석 직할로 편제된 광복군을 통제(지휘)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합격권 정답률 예상치(기대점수)** : 2.5점(62.5%)

○ 수험생 유사 답안 검토 사례

- ①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의 의의에 대한 서술 검토

— <검토 사례> —

- 의의는 임정을 지지하는 단체들 간 우익세력의 통합이다.
- 의의는 좌우익이 모두 참여한 것이다.

- ② 중국 군사위원회가 ‘한국광복군 행동 준승 9개항’을 제정한 이유를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이 극히 적은 편.

— <검토 사례> —

- 광복군의 통수권의 합리화를 위해 주석제가 신설되어 강력한 지도체제가 성립하자, 그보다 상위로 광복군의 활동과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다)를 제정하였다.
- 한국 광복군 창설로 군 통수권 일원화를 위해 김구 중심의 주석제로 개헌하자 중국 군사위원회가 광복군의 통수권을 장악하기 위함이다.
- (다)의 제정이유는 지휘권 마찰이 생겨서 중국 군사위원회가 지휘권을 갖기위해 제정하였다.
- 중국 군사위원회가 (다)를 제정한 이유는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집단지도 체제였기 때문이다.
- (다)를 제창한 이유는 대다수의 조선의용대가 공산당 지역인 화북지방으로 이동한 사례를 사전에 견제하기 위함이다.
- 임시정부가 (나)로 광복군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국민 정부의 통제에서 이탈하려 했기 때문이다.
- 중국 군사위원회가 (다)를 제정한 이유는 한국 광복군이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하여 한국광복군이 독자적인 무력집단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 한국 광복군의 관내 군사작전 등을 중국 군사위원회가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 (나)의 사료 탐구

본 정부는 이번 제32회 임시의정원회의에 임시약헌 개정으로 제출하여 임시정부의 조직기구를 변경하였으니 즉, 강성이 있는 국무위원회 주석 1인과 6인 이상 10인 이내의 국무위원으로 국무위원회를 조직하여 국무총리를 총관하여 국무위원으로 각부를 분담케하여 서로 안팎이 되게 하고 국무위원회 주석과 국무위원을 다 의회에서 선출하여 종전에 국무위원끼리 주석을 호선하던 제도를 폐하였다. 또 국무위원회 주석은 일반 국무를 처리함에는 총리격을 가지었고 그의 정부를 대표하며 국군을 총감하는 권리를 설정하였으니 이 방면으로는 국가원수격을 가지게 되었다.

금번의 이 개정은 주로 전일과 같이 국무회의의 만반회의 결정으로는 이 비상시국을 맞은 계기에 너무나 적당치 못한데다가 더욱 우리 광복군 총사령부가 설립되어 전방에서 군령을 행하게되는 이때에 통수권의 합리화가 무엇보다 급결하며 약헌개정 언론화가 된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 중대한 변경에 불과 몇날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만장일치로 개정안이 통과되며 주석과 국무원이 선출된 것이다. 그리하여 만반사무를 통일 또 민속키 위하여 국무위원도 6인만을 선출하였으며 이왕의 동인들은 각각 전임할 사무를 분담한 것이니 금번의 개조는 또한 시대를 그은 새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 대한민국 22년 10월

○ (다)의 사료 탐구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는 제(第)10차(次) 국무회의(國務會議)를 개최하고 중국정부(中國政府)가 요구한 광복군(光復軍)의 9개항(個項)의 활동준승(活動準繩)을 수락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선언(宣言)[12월 1일 발표]과 포고문(布告文)[12월중 발표]을 작성 발표키로 결의하다.

작년 9월 17일 중경에서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를 성립하고 李靑天으로 총사령을 임명하여 군사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겨우 10수개월 동안이지만 성적이 불만하였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무장 행동은 원래 경계가 있는 것으로서 한나라 영토 안에서는 2중 군령을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작전지휘는 통일이 필요하고 연합전선은 제각기 잘났노라 우두머리 없는 것이 금기(禁忌)임에라.

본 정부는 여기에 느낀 바 있어 특별히 중국 국경이내에 있는 광복군으로 중국 항전기간 중에는 임시로 중국의 통수 관할에 속하여 그 절제를 받게 하며 모든 것을 전시 법규에 따르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군령을 분명히 지키고 기율을 엄히 단속하며 동심 동덕 극강극용(克剛克勇)으로 연합군사의 실체가 있고 공동의 원수를 초멸하려 하는 것이다.



○ 출제 근거

① 2015 한국사(비상) 220쪽

임시 정부의 해체에 반대한 김구는 민족 혁명당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 국민당을 만들었다(1935). 한국 국민당은 민족 혁명당에서 탈당한 조소앙, 지청천 등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을 도모하였고, 미주 지역의 대한인 국민회 등의 단체와 함께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회를 결성하였다(1937). 이로써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세력은 민족주의 계열의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회와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의 두 갈래로 통일되었다.

② 시민의 한국사 2권 241쪽

1937년에 우파 세력인 한국독립당·한국국민당·조선혁명당은 임시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와 지지를 표방한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전선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세 정당과 한민애국단·미주대한인국민회·하와이 대한인국민회·대한인단합회·대한인부인구제회·대한인동지회 등 9개 단체가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조직했다. 좌파 세력은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결집했다. 1937년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그리고 아나키스트그룹인 조선혁명자연맹은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했다.

③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3권(중경시기) 29-30쪽

1940년 10월 8일 주석을 행정수반으로 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집단지도체제가 단일지도체제로 바뀌었다. 행정수반의 명칭을 주석으로 하고, 종래 국무위원이 교대로 맡던 주석을 임시의정원에서 선거하도록 했다. 주석이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권한을 강화했다. 주석은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행정수반으로 국군(광복군)의 통수권을 가졌고, 긴급명령 발동과 정치범을 특사할 수 있었다. 주석의 지위를 국가원수와 같은 존재로 규정하였고, 주석이 정부의 행정권을 장악하여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④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권 한국광복권 해제

1940년 9월 17일 중경에서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다. 총사령부의 성립이 곧 광복군의 창설이었다. 우선 지휘부인 총사령부를 성립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하부조직을 편제해가면서 군대로서의 조직을 갖춘다는 것이 광복군 창설의 기본계획이었던 것이다. 광복군의 창설은 중국군사위원회와 갈등의 소지가 있던 예측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즉 중국군사위원회의 양해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 임시정부의 국군으로 창설한 것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광복군을 창설한 사실을 중국측에 알렸다. 총사령부성립전례식을 거행한 이틀 후인 1940년 9월 19일 김구가 주가화에게 보낸 「총사령 이청천(李靑天)과 만나서 협의를 청하는 편지[函]」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김구는 총사령부성립전례식을 순조롭게 거행하였다고 하면서, “다만 앞으로 훈련 편제 등 사항은 모두 검토 지시를 기다려 준행(遵行)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광복군을 창설하였고, 앞으로 광복군의 훈련과 편제 등의 사항은 중국측의 지시를 받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별지로 총사령부 직원 명단을 첨부하면서, 이를 승인해 줄 것과 중국 담당기관에 등록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창설한 후,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활동을 개시하였다. 1940년 10월 9일 주석을 중심으로 한 단일지도체제의 헌법 개정을 단행하면서, 같은 일자로 「한국광복군총사령부조직조례(韓國光復軍總司令部組織條例)」를 제정 공포한 것이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제1조에 “한국광복군총사령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의 직할에 둬”이라고 하여,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주석이 통수권을 갖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였다. 임시정부는 중국군사위원회의 예측의도를 거부하고, 중국군사당국의 양해와 협조없이 독자적으로 광복군을 창설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총사령부조직조례를 제정 공포한 것은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국군이라는 것과 임시정부의 예측하에 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⑤ 우리역사넷 ‘한국광복군 행동준승 9개항’ 사료 해설

1941년 3~5월 사이 조선의용대 대원 대부분이 중국 공산당 거점 지역인 화북으로 진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임시 정부와 중국 군사위원회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조선의용대는 물론 광복군까지 확실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장개석(蔣介石)의 지시로 광복군과 조선의용대를 중국 군사위원회에 예측시키고, 참모총장이 직접 장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1941년 10월 30일 중국 군사위원회는 광복군의 활동을 규제하는 「한국광복군 행동 준승 9개 항」을 요구하고, 광복군을 중국 군사위원회 판공청(辦公廳)에 배속시켰다. 이로써 광복군의 통수권과 작전지휘권 등이 중국 군사위원회에 넘어갔고, 광복군에 상당수 중국 측 인물이 파견되어 활동을 간섭·통제하였다.

⑥ 2015 한국사(비상) 224쪽

1943년 한국 광복군은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미얀마·인도 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하여 일본군 포로 심문, 문서 번역, 선전 활동 등을 담당하였다.



A-09

- **정답** : ㉠은 삼강행실도이고, 편찬 목적은 글을 모으는 계층에게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함이었다.
㉡은 고려사절요이고, 그 편찬 체재의 특징은 연월의 기술을 통해 방대한 기전체의 양을 축약하고, 사건의 추이 이해에 편리하기 위함이었다.

○ **합격권 정답률 예상치(기대점수)** : 50%(2점)

○ **사료 탐구**

(가) 자중국이지아동방, 고금서전소재, 미불수열, 득효자충신열녀지탁연가술자, 각백유십인, 도형어전, 기실어후, 이병계이시. 효자즉근록태종문황제소사효순사실지시, 검취신고조신부소찬효행록중명유이제현지찬, 기여척령보신분찬, 충신열녀지시, 역령문신, 분제편홀, 사명㉠삼강행실도, 령주자소, 침재영전.

(가) 중국으로부터 우리 동방에 이르기까지 고금의 서적에 있는 것을 찾아보지 않은 것이 없이 하여 효자·충신·열녀로 뚜렷이 기술할 만한 사람 각각 110명을 뽑아서 전면에는 그림을 그리고 후면에는 그 사실을 기록했으며, 아울러 시(詩)까지 써 놓았다. 효자에 있어서는 삼가 명나라 태종황제가 하사한 효순사실(孝順事實)의 시를 기록하고, 검하여 신의 고조(高祖) 신 권부(權溥)가 지은 『효행록(孝行錄)』 가운데 있는 명현 이제현(李齊賢)의 찬(贊)을 가져왔고 그 나머지는 보신(輔臣)으로 하여금 나누어 짓도록 하였으며, 충신과 열녀의 시도 문신들로 하여금 나누어 짓게 하여, 편찬이 끝나자 ㉠『삼강행실도』란 이름을 내리고 주자소(鑄字所)로 하여금 발간해서 영구히 전하게 하였다.

(나) 고상수명어선왕, 불감이황루고사, 월신미추, 서내극성. 어시, ㉡우부집사적지관어세교자제도지가위궁식자, 산번취간, 표년서사, 이편고열. 연후사백칠십오년, 삼십이왕지사, 포괄무유, 상약필거, 이사가지체, 시약조비. 수문사비리, 기차부정, 이어선악권징, 소유보호치도, ...(중략)... 소찬㉢고려사절요삼십오권, 근수전이문, 무임격절병영지지. 신종서등, 성황성공, 계수계수근언.

(나) 일찍이 선왕께 명을 받고는 감히 저희가 거칠고 못난 탓을 하면서 굳이 사피하지 못하여 신미년 가을에야 글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에 ㉡또 세교(世敎)에 관계되는 사적(事跡)과 모범이 될 만한 제도를 모아서 번거로운 것은 깎아 간략하게 하고 연월을 표시하여 사건을 서술해서 고열(考閱)에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야 475년간에 걸친 32왕(王)의 사적이

포괄되어 빠짐없이 자세하고 간략하게 모두 기록되어사가(史家)의 체재(體裁)가 비로소 대강 갖추어진 듯합니다. 비록 문사(文辭)가 비루하고 속되어서 편차(編次)가 정세(精細)하지 못하지만, 착함을 권장하고 악함을 징계함에 있어 정치하는 도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중략)... 찬술한 ㉢『고려사절요』 35권을 삼가 이 글[箋]과 함께 올리오며, 간절하고 두려운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신 종서등은 진실로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면서 삼가 말씀을 올립니다.

○ **수험생 유사 답안 검토 사례**

① 삼강행실도의 편찬 목적

- <검토 사례> —
- 유교적인 정치이념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 성리학적 이념과 질서를 백성에게 전달하여 성리학적 국가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이다.

② 고려사절요의 편찬 체재의 특징을 밑줄 친 ㉡을 참고하여 서술할 것.

- <검토 사례> —
- 고려사의 내용을 국왕이 열람하기 좋게 연·월·일 순으로 편집한 것이다.
 - 기전체 사서의 읽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편년체로 서술하였다.
 - 연대기적 순서로 서술한다는 특징이 있다.
 - 편찬체제의 특징은 편년체이다.
 - 왕의 일대기를 세가에 서술했다.

○ **출제 근거**

① **시민의 한국사 1권, 398쪽**

문자 해독 능력이 부족한 계층을 위해 대민 교화서를 제작·반포했다. 교화서 대부분은 유교의 기본 윤리강령인 삼강오륜(三綱五倫)에 관한 것이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서적이 세종대에 간행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이다. 이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충·효·열 삼강을 잘 실천한 사례들을 뽑아서 간추린, 일종의 사례집이다. 앞면에는 그림을, 뒷면에 글을 실어 지식인이 글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충·효·열의 덕목을 지닌 인물들을 표창한 것은 고려시기에도 익히 해온 전통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모범이 되는 행실을 모아서 그림과 산문, 시를 결합한 형식으로 기록한 것은 조선에서 시작했다.

② **시민의 한국사 1권, 401쪽**

『고려사』 편찬 직후 다시 기전체의 단점 등이 문제시되어 편년체로 『고려사절요』를 편찬했다.



A-10

○ **정답** : ㉠은 시모노세키 조약이다. (나) 조약의 체결로 인한 변화는 최혜국 대우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대등한 관계의 조약 체제가 불평등한 조약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은 위해위(웨이하이웨이)이고, (다) 조약을 체결한 목적은 러시아의 뤄순·다롄 조차에 따른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 **인정 답안** : (나)는 ‘불평등’, (다)는 ‘남하 저지’ 등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임.

○ **합격권 정답률 예상치(기대점수)** : 75%(3점)

○ 수험생 유사 답안 검토 사례

① 중·일 관계의 변화 양상에 대한 서술이 시모노세키 조약 이전과 이후로 명확한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중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것처럼 서술하거나 혹은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아닌 다른 방향의 서술로 흐른 경우가 있었음.

<검토 사례>

- 중국으로부터 서양이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조약상 특권을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최혜국 대우 규정을 획득하여, 중국 내에서의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 일본과 중국이 동등한 위치의 국가로서 관계가 변화되었으며 최혜국 대우와 같은 특권을 통해 일본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침투를 가속화하였다.
- 청이 일본에게 최혜국 대우를 적용함에 따라 중국은 기존 동아시아 질서의 패권을 상실하고 일본의 수탈대상으로 전락하였고,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의 패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 일본과 중국이 동등한 위치의 국가로서 관계가 변화되었으며 최혜국 대우와 같은 특권을 통해 일본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침투를 가속화하였다.
- 최혜국대우를 통해 중국의 이권을 일본에 주며 일본의 반식민지로 전락했다.
- 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등 기존의 대등한 관계에서 일본이 확고한 우위를 가지는 관계로 변화하였다.
- 최혜국 대우를 통한 개항장 이용과 내지 침투가 가능해져 청은 일본의 자본 투자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 최혜국 대우를 설정함으로써 조공-책봉에 의한 중화주의적 제국질서에 의한 외교관계에서 만국공법에 의한 동등한 외교관계로 변화한 것이다.

② (다) 조약의 체결 목적에 대한 검토 사례

<검토 사례>

- 러시아가 뤄순, 다롄을 조차하여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자 이러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응하여 아시아로의 진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러시아의 뤄순, 다롄 조차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다.
- 러시아가 홍콩까지 남하할 것을 우려하여 위해위를 조차하였다.
- 러시아가 의화단 사건 이후 만주에 주둔한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 삼국간섭 이후 러시아가 뤄순, 다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자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고자 함이었다.
- 러시아의 만주에서의 이권 확보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 출제 근거

①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295쪽

청조는 일본에 강화를 요청했고 이에 이홍장과 이토 히로부미 사이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의 내용은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하며 요동반도와 대만, 평호열도를 할양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며, 일본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는 신통상 조약을 체결하여 4개 항을 개항한다는 것이었다.

②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296쪽

일본은 중국에서 서구 열강과 같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으니, 과거 중국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이제는 중국보다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셈이었다.

③ 『중국 근현대사』(삼천리) 2권 29쪽

제2조에서 청은 랴오둥반도와 타이완, 평후제도를 일본에 할양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전비 배상금으로 고평은 2억냥(3억엔)을 7년에 걸쳐 나누어 내기로 약속했다. ... 제6조에서는 청일수호조규 등 기존의 조약을 파기하고, 청일 관계를 청과 서양 국가의 조약 관계와 동일한 상태, 즉 불평등조약 관계로 이행시키도록 했다.

④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296쪽

조약 내용이 알려지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은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3국 간섭의 결과 요동반도를 할양하지 않는 대신 추가배상금을 물게 되었다. 그리고 러시아에게 여순과 대련, 프랑스에게 광주만, 독일에 교주만의 조차를 허용하였다. 이에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막는다는 구실로 위해위를 조차했다.

B-01

- 정답 : ㉠은 도결, ㉡은 삼정이정청이다.
- 합격권 정답률 예상치(기대점수) : 90%(1.8점)

○ 출제 근거

① 조선시대사 2권(푸른역사) 329쪽

진주 안핵사 박규수는 민란의 원인으로 삼정문란과 전 우병사 백낙신의 탐욕을 꼽았다. 백성이 난을 일으킨 까닭은 삼정이 모두 문란해진 것이 이유인데, 그중에서도 살을 베어내고 뼈를 깎는 고통은 환곡이 제일 큰일이라 했다. 또한 백낙신이 시기를 틈타 병영의 환포와 도결을 거행해 6만 냥의 돈을 거두려 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노여움이 폭발해서 변란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이에 철종은 백낙신을 엄하게 다스린 다음 제주도에 귀양 보냈다. 그리고 진주 안핵사로 하여금 각 현을 두루 돌면서 난의 원인을 철저히 찾아서 아뢰도록 했다.

난 초기에는 정부에서 항쟁의 원인이 수령의 실정에 있다고 보고 수령을 파직시키는 한편 봉기 농민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했다. 그러나 항쟁이 전국적으로 번져가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는 매우 강경하게 대응해 주모지를 처형했고 가담자들도 가혹하게 처벌했다. 이러한 강경 탄압에도 항쟁이 계속 번져가자 정부는 1862년 (윤)8월에 삼정이정청을 설치해 삼정의 폐단을 개혁하려 했다.

② 2015 역사2(미래엔) 157쪽

정부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 농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일부 세력의 반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임술 농민 봉기는 농민들이 조세 제도의 폐단에 맞서 직접 저항하였다는 점과 농민의 사회의식이 크게 성장하였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B-02

- 정답 : ㉠은 정성공, ㉡은 천계령이다.
- 합격권 정답률 예상치(기대점수) : 70%(1.4점)

○ 수험생 오류 사례

‘㉠은 천계령이다.’라고 썼다는 메일이 10통 이상 왔음. 다만 ‘출제진과 채점진이 이것은 해당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판단하여 맞게 할 가능성 있음.

○ 사료 해석

역적 정성공이 숨어서 웅크려 지내며 바다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여러 해가 되었다. 파도가 소굴이 되어, 전토가 없는 무리들이 힘써서 가히 직업으로 삼아 지낸다. 일체의 양식과 철과 나무, 물건을 만드는 재료 등을 구하여 사용하는데, 모두가 육지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 (중략) ... ㉠그런고로 바다를 통하는 것을 엄히 금하도록 하고, 오랫동안 이를 널리 알려 행하도록 하였다. ㉡이제 바닷가에 살고 있는 민들은 내지로 옮기도록 하고, 방비 시설을 쌓고 살피도록 한다. ... (중략) ...

역적(㉠)반거해요유년, 이파도위소혈, 무전토물역가이자생, 일체수용양미, 철목, 물요, 개계육지소산. 약무간민교통상관잠위자조, 즉역적좌곤가대. 향인민해각처간민상관, 암여교통호상무역, 장내지각항물요공송역적. ㉡고엄입통해지금, 구경편행효유. ... (중략) ... ㉢금민해거민이경내천, 방어계찰, 역속심역, 부득잉전완홀. 자강희원년이후, 해지방문무각관통개전비, 무수엄입보갑지법, 불시엄가계찰.

○ 출제 근거

① 동양사개론 615쪽

해안지대 백성이 대만의 정성공(鄭成功) 및 기타 반청세력(反淸勢力)과 연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바닷가에서 내륙지방으로 이주시키는 천계령(遷界令)을 내렸다. 이리하여 산동·강절·광동의 연안 백성은 그들의 생활터전을 잃고 내륙으로 강제 이주되면서 매우 빈궁해졌다.

②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260쪽

강희제는 삼변의 난을 진압하고 대만에서 청의 지배에 저항하고 있던 정성공(鄭成功) 세력을 정벌함으로써 대만까지 청의 판도로 만들었다.

③ 동양사개론 614쪽

현(縣) 아래의 향촌 자치조직으로 명(明)의 이갑제(里甲制)에 대신하여 청(淸)에서는 보갑제(保甲制)를 실시하였다(1708).

B-05

- **정답** : ㉠은 의천이다. 의천이 모은 문헌 목록의 명칭은 ‘신편제종교장총록’이고, 그 문헌이 미친 영향은 교장을 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이것ی송, 거란, 일본에까지 전해져 동아시아 불교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은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삼한통보, 은병 등을 발행하도록 한 것이다.

- **합격권 정답률 예상치(기대점수)** : 3.5점(87.5%)

○ **수험생 유사 답안 검토 사례**

- ① ‘그 문헌이 미친 영향에 대해 서술할 것’ 검토 사례

— <검토 사례> —

- 교장 편찬의 저본이 되었다.
- 송, 거란 등의 장소를 모아 이후 교장이 간행되는데 기반이 되었다.
- 송과 요의 불교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교장을 발간행하였다.
- 대장경의 편찬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 문헌이 미친 영향은 재조대장경 편찬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 팔만대장경판을 판각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 이 문헌의 영향으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천태종이 개창되었다.
- 이 문헌이 미친 영향은 교종의 교리를 체계화하였다는 것이다.

○ **출제 근거**① **2015 동아시아사(비상) 58쪽**

11세기 후반 송, 요, 고려가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고려의 승려 의천은 기존 대장경의 내용을 보완하고 독자적인 대장경을 제작하기 위해 송에 가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였다. 의천은 송뿐만 아니라 요, 일본 등지에서 입수한 불교 서적을 토대로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집하였고, 이 목록을 기초로 하여 『속장경(교장)』을 간행하였다. 『속장경』의 제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대장경은 『거란 대장경』이었다. 『거란 대장경』은 송의 판본보다 분량이 풍부하고 귀중본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존 대장경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러한 『속장경』은 다시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되었다.

② **고려시대사 2권(푸른역사) 162쪽**

송에서의 경험은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는 사상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고, 귀국하면서 가져온 3000여 권의 불교 전적은 훗날 교장을 간행하는 바탕이 되었다.

③ **고려시대사 2권(푸른역사) 159-161쪽**

거란전이 끝난 뒤 고려는 대내외적인 정치 상황이 안정되면서 평온한 시기를 맞게 되어 고려 귀족문화가 만개했다. 안정된 분위기와 국가적인 지원 속에서 불교사상이 발전했고 그 결과 많은 불서(佛書)가 수집·연구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으로 의천의 교장(敎藏) 간행과 소현의 유식학 관련 장소(章疏)의 간행을 꼽을 수 있다. 의천은 대장경에 대한 각종 주석서를 모은 교장을 편집·간행했다. 의천은 고려뿐만 아니라 송나라와 거란, 일본 등에서 유통되고 있던 교장을 폭넓게 수집하여 목록집 『신편제종교장총록』을 완성하고 홍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교장을 간행했다. 의천이 교장을 간행할 당시 동아시아 대승불교권에서 주석서를 모은 교장과 같은 것은 의천만이 이루어낸 업적으로 교장은 송, 거란, 일본에까지 전해져 동아시아 불교학 발전에 기여했다. 의천이 간행한 교장의 판목은 홍왕사에 보관되었으나, 대몽항쟁기 홍왕사가 불타면서 같이 소실되고 목록집인 『신편제종교장총록』만 현전하는데, 여기에 수록된 책의 제목을 통해 교장의 성격과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간행본의 일부가 조선시대까지 전해져, 세조 때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불서(佛書) 중에는 의천의 교장을 중간(重刊)한 것들도 있다.

④ **시민의 한국사 1권 239쪽**

숙종은 외척과 처족을 배제하고 지지 세력을 구성해 국정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부국강병을 목표로 개혁을 추진했다.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재정 부문이었다. 대각국사 의천(義天)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정 금속화폐 유통정책을 시행했다. 의천은 법정화폐를 쓰면, 물품화폐를 사용하던 기존의 질서에서 권세가나 지방 세력가들이 누렸던 이득을 줄일 수 있고 대신 그 혜택이 국가와 중하급 관료 및 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화폐 제조를 담당하는 주전도감(鑄錢都監)을 설치해 해동통보(海東通寶)·삼한통보(三韓通寶) 등의 동전과 활구(濶口)라고도 불린 은병(銀瓶)을 주조·발행하였다.

⑤ **고려시대사 2권 171쪽**

재조대장경의 목록 작성과 교감 작업은 화엄종 승려 수기(守其)가 담당했다. 그는 초조대장경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송, 거란 대장경을 비롯하여 구할 수 있는 판본들을 모두 대조하여 교정을 보았으며, 화엄종 승려와 수선사 승려들의 요구에 따라 화엄과 선에 대한 저술도 추가했다.

B-06

- **정답** : ㉠은 팔고문, ㉡은 회시, 이장과 갑수의 역할은 (㉢의) 부역황책 작성, 어린도책 작성, 조세징수, 치안유지, 재판, 교화 등을 맡는 것이었다.

- **합격권 정답률 예상치(기대점수)** : 2.8점(70%)

○ **수험생 유사 답안 검토 사례**

- ① ‘밑줄 친 ㉡이 담당한 업무를, 괄호 안의 ㉢에 들어갈 장부의 명칭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부분에서 문항을 오독하여 실수한 경우가 다소 있음.

<검토 사례>

- ㉡의 부역황책을 바탕으로 향촌에서 부역민을 징발하고 만약 부족분이 생길시 본인이 그것을 채워야 하는 것이었다.
- 이갑호는 부역황책의 작성을 담당하였으며, 향촌의 교화와 부역과 조세의 원활한 징수를 도맡았으며 각종 토목 공사에 백성들을 원활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다.
- 부역황책을 토대로 군현의 민들의 조세와 부역 징수
- ㉡은 부역황책이고, ㉢은 조세징수를 담당하였다.

○ **출제 근거**① **동양사개론 583쪽**

명의 과거제도는 송대와 같이 지방에서 실시된 향시(鄉試)와 경사(京師)에서 거행되는 회시(會試) 그리고 황제가 친히 시험을 보는 전시(殿試)의 3단계가 있다.

지방의 향시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부·주·현(府·州·縣)의 학교[學校: 유학(儒學)]출신자로서 생원(生員: 속칭 秀才)의 자격을 가지고 학교의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이것은明代에 과거와 학교교육이 밀접하게 관련을 갖게 되는 요인이 되면서 교육과 과거가 유착하는 결과가 되었다.

학교(유학)에 들어가기 이전의 학교입학 응시자를 동생(童生)이라 하며, 동생은 제학관(提學官)이 주관하는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생원이 된다. 뿐만 아니라宋代의 1회에 한한 것과 달리 향시의 합격자인 거인(舉人)이나 회시(會試)의 합격자인 진사(進士) 그리고 향시의 응시자격자 생원(秀才)은 모두 한번 합격하면 평생 동안 그 자격을 지니게 된다. 이는 명대의 신사계층을 대량으로 양산하면서 이들 신사가 정치·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당대 이후 과거시험의 주된 과목은 진사과(進士科)이고 진사과 시험은 주로 시부(詩賦)로 시험하였다. 그러나 명대의 복고주의적 문화경향은 과거시험에도 나타나 유교경전만으로 시험을 치루었는데, 이는 명대만의 특색이다. 그러므로 명대의 과거시험 출제범위는 4서(논어·맹자·대학·중용)와 5경[시·서·역·예기·춘추(詩·書·易·禮記·春秋)]에 국한되었고 그 답안은 반드시 팔고문(八股文)으로 작성하여야만 했다. 팔고문은 태조의 홍무(洪武) 18년에 시작되어 성화(成化) 23년의 회시(會試)에 이르러 완비된 유교경전에 대한 시험답안 작성형식이다.

팔고문은 서체의 형식이 까다롭고 엄격하여 자유로운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수험생은 창의적 노력보다는 팔고문의 형식을 익히는데 온힘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답안지 작성에는 글자 수까지 엄격히 제한하였기 때문에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성현의 말씀이나 주자학의 명구만을 인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자가 유리하였다. 그리하여 과거의 응시자는 오로지 팔고문의 형식에만 치우쳐 합격에만 몰두하였기 때문에 사상과 학문의 발달을 저해하였다. 팔고문은 진시황제의 분서갱유에 비유할 정도로 명대의 문화에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②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243쪽**

이갑제는 능가 110호를 1리(里)로 하고 부유한 10호를 이장호(里長戶)로 하여 차례대로 이장을 맡게 하고, 나머지 100호를 10갑으로 나누어 돌아가면서 각각의 갑을 담당할 갑수(甲首)를 맡게 하는 제도였다. 그렇게 해서 매년 이장 1명과 갑수 10명이 리안의 황책 작성, 조세징수 등을 맡게 했다. 이갑제를 통해 명 초 조정은 향촌을 안정시키고 지배력을 구축구속까지 미칠 수가 있었다.

③ **동양사개론 566쪽**

매년 이장(里長) 1명과 갑수(甲首) 10명이 리의 부역징수, 치안유지, 재판, 교화, 부역황책(賦役黃冊)의 작성 등 향촌행정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였다. 태조는 이갑제의 실시와 함께 호적 및 조세대장인 부역황책을 전국에 걸쳐 작성하여 각호의 소유 토지, 인구의 이동과 증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세와 요역을 정하였다. 이와 함께 토지의 정확한 측량을 통하여 토지대장인 어린도책(角麟圖冊)을 작성하여 명실공히 향촌사회를 지배하는 기초를 확립하였다. 이장과 갑수의 임무는 10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맡도록 하였다.

B-09

- **정답** : ㉠은 병호이고, 이러한 제도의 특징은 모병과 투항병을 중심으로 세습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운 것으로써 (나)의 병농일치제와 달리 병사와 농민을 분리한 것이다. ㉡의 발생 원인은 복역기간 동안의 양식과 생활 비용 등까지 충당하는 과중한 부담 등이 문제가 되어 도망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에 해당하는 정책은 괄호 정책이다.

- **합격권 정답률 예상치(기대점수)** : 70%(2.8점)

○ **수험생 유사 답안 검토 사례**

- ① ‘도망’의 원인을 밑줄 친 ‘부병’ 제도의 특징에 근거하여 서술할 것이라는 조건인데, ‘부병’ 제도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검토 사례>

- 부병의 근간이 되는 절충부가 수도 인근에 편중되어 병역 의무가 특정 지역민들에게 과도하게 편중되어 발생했다.
- 원인은 위사의 부담이 크고 절충부가 특정 지역에 편재해 있어 고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 균전제와 결합되어있는 ㄴ 제도는 균전제가 붕괴하면서 ㄷ의 상황이 나타났다
- 고향에서 먼 곳이나 변방 지역에 대한 균역으로 재정적 부담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 **출제 근거**①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128쪽**

병호제란 병력의 확보를 위해 모병과 투항병을 중심으로 세습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제도를 말한다. 가족과 함께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해 줌과 동시에 일반 주군민과 구별하여 병력을 확보하는 방법이었다. 쉽게 말하면 상앙변법 이래 채택되었던 병농일치의 제도가 병농분리의 제도로 바뀐 것이다.

② **동양사개론 282쪽**

후한 말 삼국시대의 대란이 일어나자 지방의 호족은 자위수단으로 인민을 모집하여 장원의 사병으로 충원하였다. 특히 위나라의 조조는 호족지배하의 인민을 징발하기가 어렵게 되어 하는 수 없이 유민을 모으거나 양민을 동원하여 병호(兵戶)로 조직하니 이것이 유명한 조조의 병호제이다. 병사는 가족과 함께 병호에 편입시켜 세습신분화하였다. 그 결과 전한대의 병민일치제(兵民一致制)는 붕괴되고, 특히 남조에서는 병호의 신분이 크게 떨어져 양의 병호는 노예적 신분에 가까웠다.

③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172쪽**

절충부는 각각 수도의 궁전과 도성을 경비하는 12위·6솔부 어느 한 쪽에 소속되어 병사들은 매년 일정기간 순번을 정해 이들의 지휘를 받으며 위사(衛士)가 되어 근무했다. 이것은 농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고, 결국 지방에서는 병사가 타 지방으로 도망가는 현상마저 생겨났다. 또 부병은 재역기간 중 한 번 진·수 등으로 불리는 변경 방위기구에 가서 3년간 방인(防人)으로 근무해야 했다. 부병은 복역기간 동안 양식과 생활비용 및 무기까지 개인의 비용으로 충당해야 했으므로 국가의 군사비는 크게 줄어든 반면 부병의 부담은 과중하게 되었다.

④ **중국의 역사 : 수당시대(혜안) 119쪽**

721년(개원 9) 감찰어사 우문용은 괄호(括戶 : 인민을 호적에 묶어 두는 것)를 건의하여 (1)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 조사, (2) 여러 종류의 요역 부정단속, (3) 도망가 버린 호구를 수색하여 찾아낼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 실시 명령이 떨어지자 위에서 서술한 이교의 방책에 기초하여 괄호가 행해졌다. ... (중략)... 723년(개원 12) 권농판관 등을 각지로 파견 조사하여 괄호를 실시하여, 같은 해 말까지 임시 거처지에서 호적에 오른 객호 80여만 호(약 4백만)와 등록되지 않았던 대량의 토지를 토지대장에 올렸다. 이는 당시 인구의 약 1%에 가까운 수를 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량을 올리기 위해 숫자를 약간 부풀린 것도 있겠지만 대단한 성과임은 분명하다.

⑤ **중국의 역사 : 수당시대(혜안) 211쪽**

우문용이 괄호정책을 펼 즈음, 수도경비병의 모병을 주장한 장열은 장구령, 노종원 등과 함께 괄호정책은 민(民)을 어지럽히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대하였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수·당 전기 통치체제의 기초는 호적을 통해 인민을 파악하는 데 있고, 우문용의 괄호는 호적에서 벗어난 도호를 다시 당 왕조 권력 아래 편입시켜 심하게 파탄된 수·당 전기 통치체제를 다시 짜맞추는 것이 목표였다. 장열 등은 파탄의 심각성을 그대로 인정한 후 그에 대응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하게 파탄된 체제에 매달리지 않았다.

⑥ **중국의 역사 : 수당시대(혜안) 211쪽**

장열은 위사제도 파탄할 것이라고 치부하고 모병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문용의 괄호 때와 같이 이 경우에도 장열은 패하였다. 장열이 모병제를 상주한 시기로부터 근 3년이나 지나 확기제가 발족된 것도, 하나는 소농민의 저항으로 당왕조가 예측한 대로 정원을 순조롭게 충족시키지 못한 때문이지만, 중앙에서 상주를 둘러싸고 논의를 주고받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B-10

- **정답** : ㉠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은 미소공동위원회이다. 미군정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설치한 의도는 중도와 육성 등을 통해 한반도 정국을 자국에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는 것이었다. (나)에서 결정된 정부 수립 방안은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이다.
- **합격권 정답률 예상치(기대점수)** : 87.5%(3.5점)
- **(나) 사료 검토[2015 한국사(천재) 243쪽]**
 - 한국 국민 중에서 대표를 선출하고 한국 독립 문제 해결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설치한다.
 - 보통 선거와 비밀 투표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되 각 투표 지구 또는 구역에서 선출되는 대표자 수는 인구에 비례하여야 하며 선거는 위원단의 감시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 『미국의 대외관계(FRUS) 1947』 Vol. VI

○ **수험생 유사 답안 검토 사례**

① **미군정의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설치 의도**

— <검토 사례> —

- 2차 미소공위가 개최될 것을 대비해 민족주의 계열의 미군정에 대한 지지와 임시정부에서의 정국 주도권 획득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 미군정이 남한에 과도적으로 입법권을 이양하여 정부를 수립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이다.
- 미군정이 이를 설치한 이유는 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미군정에게 유리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 한반도 내에서 미국을 지지해줄 우익 세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자 설치하였다.
- 남한에서 미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② **‘정부 수립 방안의 서술’ 부분을 헛갈려 하는 경우가 많음.**

— <검토 사례> —

-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 실시로 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을 실시한다는 것이 결정되었다.
- (나)에서 결정된 정부 수립 방안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입국할 수 있는 지역에서만 우선적으로 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 **출제 근거**

① **한국현대사 1권(푸른역사) 120쪽**

입법의원은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후 미군정에 의해 좌우합작과 함께 중도와육성을 위해 설치되었던 대의기구 및 일종의 입법기구였다.

② **시민의 한국사 2권 346쪽**

미군정은 좌우합작위원회를 발전시킨 입법기관인 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을 발족시켜 한반도 정국을 자국에 유리하게 이끌고자 했다. 그러나 좌우합작시도는 좌우익 주요 인물들의 불참, 1947년 7월 핵심 인물인 여운형의 피살, 같은 해 10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등으로 인해 종국에는 완전히 좌절되고 말았다.

③ **한국사길잡이 下 374쪽**

미군정은 남한에서 대중적 지지기반을 강화하고, 미·소 공위에서 소련에 견주어 우월한 자리에 서고자 1946년 중반부터 좌우합작운동을 지원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설치하고, 한국인 중간과 정치세력을 이용하여 남조선과도정부 설치를 추진했으나 이 계획은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④ **한국현대사 1권(푸른역사) 124쪽**

12월 21일, 김규식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최단 기간 내에 좌우와 남북이 연결된 총선거에 의한 입법기구로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미소공위가 계속 지연된다면 남북을 통한 확대 입법기구만으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충실한 임시정부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⑤ **2015 한국사(천재) 243쪽**

냉전은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는 미·소 양국의 대립 때문에 다시 결렬되었다. 이에 미국은 양국 사이의 협상은 더 이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한국 문제를 유엔(국제연합)에서 다루자고 제안하였다. 소련은 이 제안이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에 위반된다고 거부하고, 미·소 양군이 한반도에서 동시에 철수하자고 주장하였다.

1947년 11월 유엔 총회는 미국의 제안대로 유엔 감시하의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여 독립된 한국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한국에 파견되었지만, 소련은 위원단의 입북을 거부하였다. 이에 유엔은 소총회를 열어 선거가 가능한 지역, 즉 38도선 이남 지역만의 총선거를 결정하였다(1948).